

서평 | Review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경계지대/국경』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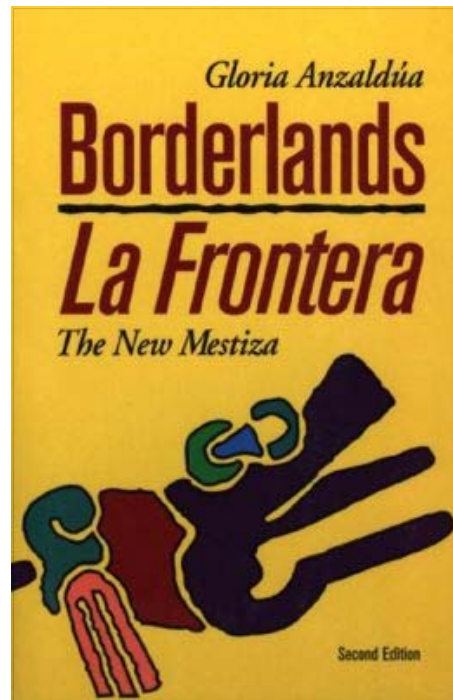
박정원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경계지대/국경』(Borderlands/La Frontera)은 지난 2012년 발간 25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판본이 출간되었다. 1987년 초판이 나온 이래 이 책은 멕시코계 미국인²⁾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소수인종으로서의 여성의 삶을 선구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국 내의 제 삼 세계 여성주의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는 한편,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당시 시작되던 포스트모던 논쟁과 혼종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로 간주된다. 이 작품을 통해서 라틴아메리카 문학 진영은 미국 내 치카노/치카나와 라티노/라티나 문학을 자신들의 영역 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문학 진영을 넘어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커다란 관심과 조명을 받아왔다. 안살두아가 전개시킨 ‘경계’이론의 다중적 함의는 다문화주의, 문화이론, 여성주의, 경계 문학, 탈식민주의, 장르 연구 분야에 영감을 주면서 현재 이들 분야에서 이미 중요한 고전의 목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름 없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 멕시코계 미국여성의 책이 이렇게 커다란 반향과 관심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왜 현재 이

1) Gloria Anzaldúa(1987),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Aunt Lute Books.

2) 이들은 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측면에서 치카노(Chicano)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책이 많은 미국의 대학에서 교양 커리큘럼에 포함되며 필독서로 읽히고 있는가? 안살두아가 주장한 ‘경계의 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가? 이 글은 안살두아의 삶의 궤적과 그녀의 논의를 따라가면서 이 책이 가져온 복합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한국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안살두아의 삶: 경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글로리아 안살두아는 1942년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25마일이 채 떨어지지 않는 헤수스 마리아(Jesús María)라는 남부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멕시코계 미국인 6세대인 그녀의 삶은 미국-멕시코 전쟁의 결과물로 나타난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1848) 이후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멕시코계인의 운명을 상징한다. 멕시코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현재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아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와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었고, 여기에 살던 멕시코인들은 하루아침에 미국인이 되는 운명에 처한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법체계와 제도에서 살던 이들에게 앵글로 중심의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서부로 들어온 백인들은 멕시코계가 영어와 미국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악용하여, 토지를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멕시코인이 조상 대대로 경작해 오던 땅과

일터를 빼앗았다. 오래지 않아 이곳은 소수 백인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대다수 멕시코계는 토지를 잃고 소작농과 일용직 노동자의 신세로 전락했다. 이러한 불의와 차별에 저항하는 멕시코인에게는 반란인, 범죄자라는 낙인을 씌워 통제하고 차별했다. 이렇게 19세기 중반 이후 멕시코계 미국인은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다.

안살두아는 작가이자 여성주의 운동가였고, 교육자이자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치카나³⁾ 중의 한 명이었다. 텍사스와 미국 중서부 지방을 옮겨 다니던 이주노동자였던 부모는 자식 교육을 위해 안살두아가 태어난 곳 주변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안살두아는 고등학교를 거쳐 현재의 텍사스대학교 팬아메리칸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에서 영문학, 예술, 중등 교육을 공부하고 교사가 된다. 그녀는 멕시코계 미국인 학생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했다. 이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위해 텍사스대학교 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수학했지만, 치카노 문학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연구하려는 자신을 무시하는 과의 분위기에 좌절감을 느낀다. 1977년 안살두아는 텍사스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정착하면서 학위를 택하는 대신 저술활동을 시작하면서 체리에 모라가(Cherrie Moraga)와 함께 『내 등이라고 불리우는 다리: 급진적 유색인종 여성들의 글쓰기』(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라는 중요한 선집을 발표한다. 이는 백인 중심의 페미니즘이 가진 한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여성주의적 시선을 제시한 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이후 『경계지대/국경』를 집필하는 데 있어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차별과 편견, 불평등과 억압의 경험은 그녀가 항상 시스템 내부의 바깥, 즉 경계지대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제공하였다. 인종차별이 여전히

3) 남성은 '치카노', 여성은 '치카나'라고 부른다.

강하게 존재하는 남부 텍사스에서는 멕시코계가 인구구성면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열등한 문화로 취급되면서 주류 백인 문화에 동화되기를 요구받아왔다. 또한, 남성중심주의의 멕시코 문화에서 그녀는 다시 한 번 소외되고 차별받음을 인지한다. 이렇게 ‘인종’ 문제와 ‘여성주의’는 안살두아가 혼란과 모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와 대항하는 두 가지의 중심축이었다. 그녀는 치카나 운동의 중심에서 학계와 사회운동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하다 2004년 당뇨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나의 조국,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먼저, 이 책의 제목이 지니고 있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제목 『경계지대/국경』에서 경계지대는 영어로, 국경은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 이는 안살두아의 이중언어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국경의 존재를 둘러싸고 문화적·인종적·언어적 경계지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혼혈이라는 제삼의 문화와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책의 첫 부분은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경계를 넘어서’라는 부제를 통해, 안살두아는 멕시코계 미국인의 역사와 삶을 국경을 통해 설명한다. 널리 인용되는 구절 “미국-멕시코 국경은 제3세계가 제1세계를 만나 충돌하고 피 흘리는 열린 상처다”는(25)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오기 전 멕시코 중남부 지역에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아스테카인의 원래 고향은 현재의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로 아스테카인에게는 아스틀란(Aztlán)으로 불려왔다. 이후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주로 원주민 부족들이 거주하던 이곳에 정착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19세기 초 멕시코가 독립하면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

이들은 멕시코인으로서 정체성을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독립 후 멕시코 중앙정치의 혼란기를 틈타, 그리고 한편으로 서부개척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미국은 조금씩 이 지역으로 들어와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두 나라의 전쟁의 결과로 인해 새로운 국경선이 형성되고, 미국은 이제 그 경계선이 된 강의 이름까지 리오 브라보(Río Bravo)에서 리오 그란데(Río Grande)로 바꾸면서, 멕시코계를 동화시키고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착수한다.



Gloria Anzaldúa

안살두아는 미국의 영토가 된 텍사스 지역에서 ‘동화’라는 이름으로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겪어온 정치, 경제적 차별과 정체성 말살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순한 피해의식을 넘어 자신의 기원, 전통, 언어를 지켜가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서 그녀는 ‘경계지대’를 새롭게 의미화 한다. 이곳은 ‘미국’의 영토이며, 멕시코계는 주변인, 2등 시민이라는 통념을 반박하면서 미국의 서남부, 즉 멕시코와 경계지대는 ‘또 다른 멕시코’이며, 치카노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아스테카인이 떠나온 고향인 아스틀란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즉, 미국 서남부는 치카노의 터전(Homeland)인 것이다. 안살두아는 치카노가 미국인이자 동시에 멕시코인임을, 그리고 이 ‘경계지대’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정치적 국경선을 지우고 두 국가와 문화의 접촉 지도를 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지도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안살두아는 북미자유협정(NAFTA)과 멕시코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이민자에게 단순한 법적 논리를 적용해 불법체류자로 낙인찍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다. 오히려 이들은 미국, 멕시코 양국의 오랜 역사적·문화적·경제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치카노들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경계지대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안살두아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만 한정되던 기존의 치카노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이전까지는 주로 멕시코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에 주력하던 치카노 운동과 문화진영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규모로 유입되는 멕시코 이민에 대해 새로운 대답을 내놓기에 이른다. ‘경계지대’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남서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멕시코의 북부지방을 포함하며 치카노와 멕시코인 간의 역동성과 연대라는 새로운 관계정립에 기반을 제공한다. 즉, 이 둘이 완전히 구분된다기보다는 권력과 주도권을 가진 문화와 충돌하면서 상처받고 희생되는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멕시코, 치카노 문화 내에서의 ‘여성성’의 복원

‘경계’와 ‘경계지대’를 통해 치카노의 지평선을 지리적, 인구학적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안살두아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치카노 운동의 내부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함께 풀어갈 것을 제안한다. 가족사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멕시코계 미국인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녀는 이 부분에서 보다 내밀한 개인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다. 우선 그녀는 치카나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자신이 가족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를 설명한다. 카톨릭 종교와 멕시코 문화에 깊이 뿌리박은 치카노 사회는 마치스모(Machismo)라는 남성 우월적 세계관과 전통이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안살두아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길들여지기 힘든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성에게 복종과 침묵을 강요하는 치카노 사회의 분위기는 그녀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자를 보조하기 위해 교육받고 남자에게 선택받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성의 이상적인 삶이라는 가부장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남성중심의 문화적 전체주의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안살두아는 '경계'를 다시 한 번 이용한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선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양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반-반(half and half)의 성정체성은 획일화와 이분법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동시에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남성우월주의에 대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경계'라는 단어는 안살두아에게 단순히 지리적인 지시어를 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강요된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렇다면 멕시코, 치카노 전통에 내재된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이들과 결별해야 하는가? 여기에 멕시코계이자 여성인 안살두아의 고민이 존재한다. 그녀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둘의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흥미롭게도 그녀는 아스테카의 전통과 신화로 돌아간다. 스페인 정복 이전의 아스테카 문명은 멕시코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랜 역사와 거대한 제국의 건설, 놀라운 문명 발달, 풍요로운 문화와 고유의 신화는 후손인 멕시코인의 문화적 자긍심과 함께, 유럽인과 아메리카 대륙의 혼혈 속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더할 수 없이 좋은 자산이었다. 아스테카인의 직계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이들이 가졌던 용맹함과 정복자 의식, 스페인인에 맞싸운 기개를 반영하여 멕시코의 국가정체성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스테카의 다양

한 신들 중에서도 전쟁의 신 우이칠로포츠틀리(Huitzilopochtli) 등이 이들이 정신을 대표하게 된다. 그 결과로 용맹, 전사, 정복이라는 남성성이 멕시코의 공식 문화로 자리 잡는다.

안살두아의 전략은 아스테카의 신화 속에서 감춰지고 심지어 무시되어 왔던 ‘여성성’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멕시코의 성모로 일컬어지는 과달루페 신화의 계보학을 시도한다. 스페인인의 아스테카 정복 직후인 1531년 원주민 후안 디에고(Juan Diego)가 자신과 같은 갈색 피부 부를 가진 성모를 처음 본 것은 아스테카인이 여신인 토난친(Tonantzin)을 모시던 테페약 언덕이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스테카 신앙과 유럽 카톨릭의 혼합을 보여주는 제설혼합주의의 중요한 예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안살두아는 토난친의 원류인 코아틀리쿠에(Coatlícuē)를 찾아 여성성이 아스테카인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자 유의미한 가치임을 재확인한다. 코아틀리쿠에는 뱀의 형상을 지니며 하늘에 대비되 땅과 대지를 의미하면서 생명의 탄생과 재생, 그리고 작물과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의 상징이 된 신이다. 그러나 아스테카 신화가 가진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과 균형은 무시되고 이후 여성성의 가치는 멕시코 역사 속에서 말린체(Malinche)와 요로나(Llorona)라는 두 가지 어머니의 형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이 안살두아의 분석이다. 말린체는 마야 원주민 출신으로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의 통역관이자 정부로서 아스테카 제국의 정복을 도운 인물로서 이후 멕시코 민족을 등진 배신자, 더 나아가서는 적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한 창녀의 이미지로 낙인찍혀왔다. 한편, 남편의 부정에 절망하여 자신의 아이들을 강에 버리고 이후 죽은 아이들을 찾아 밤마다 강어귀를 헤매며 눈물을 흘리는 요로나라라는 전설 속의 여성은 슬픔의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적 여성의 상을 보여준다.

멕시코 역사와 함께 코아틀리쿠에의 정신과 가치는 사라지고, 여성성은 말린체와 요로나를 통해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굳어진다. 안살두아가

아스테카 신화를 다시 읽고 재해석하는 이유는 뒤틀려진 역사와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창조와 생성이라는 긍정의 가치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그녀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위해 이와 배치된다고 여겨지던 멕시코, 치카노 문화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러나 그동안 버려져왔던 여성성을 재발견해내고 있다. 그 결과, 치카나라는 정체성 안에서 치카노로서 인종적 자부심과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담론적으로 결합해내는 데 성공한다.

경계의식의 탄생

치카노 운동을 미국-멕시코 '국경'과 '경계지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운동'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라는 관점에서 풀어낸 안살두아는 이 이 '경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에 이른다.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이후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는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혼혈로 -흑인들과 아시아인도 이 혼혈에 포함된다- 탄생한 멕시코인을 '우주적 인종'(Raza cósmica)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인종적 정체성을 찬양하였다. 안살두아는 이 혼혈(Mestizaje)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확장하면서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인 다양성 속에서 '경계를 넘어' 혼종과 혼합을 만들어내는 것을 '새로운 혼혈', '경계의식'이라고 설명한다(99). 바스콘셀로스의 혼혈을 가져와 재해석하고 인종적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그녀 자신은 새로운 혼혈(New Mestiza)이라고 명명한다.

경계지대는 두 가지 혹은 그보다 많은 요소가 만나는 공간을 의미하기에, 그 곳에 사는 이들은 어느 한쪽에도 분명하게 속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안한 감정을 지닐 수 있다. 초기 치카노 문학에서 반복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 즉 '멕시코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삶의 조건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바로 이 문

화적 경계지대에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살두아에게 이 혼란은 치카노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반대로 ‘미국인이기도 하고 멕시코인이기도 한’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형성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한다. 경계지대에 살면서 경계의식을 몸으로 체화한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던 혹은 체제가 강제하던 공간, 가치,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제3의 정체성이 생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제3의 공간, 제3의 문화, 제3의 언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3의 국가를 의미한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하는 것이 최초에는 혼동과 갈등을 야기하나 결국에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경계지대의 갈등과 애매함은 축복으로 변한다. 안살두아는 자신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나라가 조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0).

그러나 안살두아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서 교류하는 지점을 단순히 조화롭고 낙관적인 과정으로 보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지배와 통제를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권력의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안살두아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녀는 이 경계의 지점에서 약자(예를 들어, 멕시코, 유색인, 여성, 동성애자)의 입장에 발 딛고 있으면서 다른 쪽을 바라본다. 경계 지대의 양쪽 편을 포괄하면서 결국에는 이 둘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변증법적 태도를 안살두아는 영혼의 혼혈(Spiritual Mestizaje)이라고 부른다.

혼종의 세계

혼혈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경계’는 안살두아에게 보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국면으로 들어선다. 모든 삶의 현장은 ‘경계지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은 각각 다른 경계지대에 살면서 다양한 경계의식



시카고의 차카노 예술운동 벽화

을 갖게 된다. 특히,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문화와의 교류와 접촉은 존재의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살두아의 이론은 이 혼종의 세계에 대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그의 이론은 실제 세계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반영되고 적용된다. 이 책 역시 혼종의 결과물로 읽을 수 있다. 자전적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책은 역사, 정치, 에세이, 시 등이 인위적인 구분 없이 뒤섞여서 나타난다. 전통적인 문학 독자들은 이런 형식에 당황할 것이고, 종래의 비평가들은 범주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안살두아는 기존의 장르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실험을 이 책을 통해서 한다. 언어의 사용 측면에서는 이 혼종성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면서도 중간 중간 스페인어 단어와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며, 어떤 부분에 가서는 한 단락씩 영어와 스페인어가 번갈아 사용된다. 이는 본인 자신의 이중언어주의가 자연스럽게 투영된 것으로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는 동시에 이 둘의 공존

은 두 가지 정체성의 혼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암시한다. 이렇게 안살두아에게 ‘혼종’과 ‘경계의식’은 이론적 선언이라거나 일회성의 퍼포먼스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양식이고, 존재의 조건이며 생존을 위한 치카나 여성의 방식인 것이다.

안살두아와 ‘경계의식’의 유산

미국인에 속하면서도 그 안에서 명백히 아웃사이더로 살아온 치카노들에게 ‘경계의식’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주류 질서에 도전할 것을 제안해 안살두아의 사상은 인종, 성적 정체성, 계급, 지역, 출신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자신에게 부과된 억압과 모순은 경계의식을 통해 이것을 넘어서고 극복하려 할 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준다. 아나루이스 키팅(AnaLouise Keating)은 이런 측면에서 경계의식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모순에 대한 저항을 통해 급진적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영혼의 행동주의’로 평가한다(10-11). 우선 ‘경계’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억압하는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 사이에 놓인 구분과 갈등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안살두아는 치카노로서 혹은 여성으로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억압과 차별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모든 저항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틀을 제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탈식민주의와 세계화 이론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라틴아메리카 이론가이자 근대 세계의 식민성과 유럽중심주의를 탐구해온 월터 미놀로(Walter D. Mignolo)는 현재의 세계화를 자본의 논리와 획일적인 가치와 문화를 강제하는 새로운 식민주의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지구촌 각각의 지역에서는 이 세계화 논리와 지역 내부의 논리가 충돌하며 그 경

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운동(Zapatista Movement)의 예를 들면서 원주민이 언어와 문화유산,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투쟁이야말로 신자유주의와 지역의 가치가 충돌하여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미놀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계적 사고(Border Thinking)이다. 안살두아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지만 이는 그녀가 제안해온 ‘경계의식’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계의식’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이자 기회로 읽힌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80년대 당시 막 논쟁이 되기 시작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포용하며 그 장점을 이론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민과 이주, 여행과 이동으로 인해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만남과 상호 교류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살두아의 경험과 이론은 교육학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어 오늘날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다문화주의의 이해를 위한 핵심적 교재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5주년 기념 판본의 서문에서 노르마 칸투(Norma Cantú)는 이 책이 치카노와 미국, 멕시코 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읽히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경계의식’이라는 은유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자신들의 현실에 적용시키는 영감이 되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치카노 문학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작품일 뿐 아니라, 치카노 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지구화 시대의 다문화적 환경과 여전히 많은 사회적 적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존재론적 통찰과 실천적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nzaldúa, Gloria.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Spinsters/Aunt Lute, 1987.
- _____.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Fourth Edition, 2012.
- Keating, AnaLouise. "From Borderlands and New Mestizas to Nepantlas and Nepantleras: Anzaldúa's Theories for Social Change," *Human Architecture: Journal of the Sociology of Self-Knowledge*, IV, Special Issue, Summer 2006, pp. 5-16.
- Sandova, Chela. "U.S. Third World Feminism: The Theory and Method of Oppositional Consciousness in the Postmodern World," *Genders 10*, Spring 1991, pp. 1-24.
- Mignolo, Walter D. *Local Histories/ Global Desig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Yarbro-Bejarano, Yvonne. "Gloria Anzaldúa's Borderlands/ La frontera: Cultural Studies, "Difference," and the Non-Unitary Subject," *Cultural Critique*. Fall 1994, pp. 5-28.

박정원 -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